

제41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4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 농촌진흥청 소관
 - 산림청 소관
 - 해양경찰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2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09시09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09시10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범수 차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몇 개 남은 건 감액하고 부대의견하고 증감액 그쪽 심의를 하는데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정부 측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업별로 주로 수용 곤란된 내용 이런 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관서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타 부처 대비 낮은 업무추진비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다음에 농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정의 삭감이 필요하고 10% 내지 20%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최근에 쌀값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 자세 또 농림부장관의, 약속을 쉽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얘기를 장담을 하고 한 뒤에도 그 장담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저는 10%, 20% 감액도 솔직히 부족하다, 절반 수준은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차관 말씀하신 대로 청 단위만도 못한 업추비를 가지고 제가 50% 감을 생각을 한 것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 유지 정도는 제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갑자기……

○문금주 위원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발언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선교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장관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는데 예산 내

역에는 기재가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장관님 게 아마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장관은 30% 삭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장관님이 어쨌든 연말에 거의 못 쓰시고 남은 게 한 30~40%가 남고요. 그건 관서로 많이 내려 줍니다, 한 하반기쯤 가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이유야 여하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배정할 때 그것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

○**이병진 위원** 제가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열심히 하신다고 말로는 많이 하시는데 또 농정 현장을 항상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목도한 것 그리고 그분의 언과 행의 불일치에 의거한다면 동분서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면 겹쳐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제가 볼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자인했듯이 30% 정도 남는다고 하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의 감액은 타당하다고 저는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각 과별로 또 운영비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전환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명확하게 장관에게 첫 번째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표피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정도의 감액은 타당하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이것 이렇게 할게요. 현행 유지를 하되 부대의견에 작금의 쌀값 약속 미이행에 따른 책임 또 농민의 고통 분담 이런 차원에서 원래 관서업무추진비의 삭감이 바람직하나 그동안은 타 부처에 비해서 낮은 업무추진비 이런 걸 고려해서 현행 유지하면서 장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의 3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 드릴게요.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민주당도 집권을 해 본 정당인데 장관 개인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업추비를 삭감한다,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여야가 집권이 반복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야당에서 그때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삭감했다, 똑같이 하겠다, 그 당시에 2024년도 농해수위 예산 심사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경고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는 게 좋고……

○**문대림 위원** 정권 바뀐 다음에 위원장 하시면 되지요.

○**정희용 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시고 더 잘하라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제대로 하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숫자를 하시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윤준병** 예,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제가 농해수위 활동을 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는데요. 많은 우리 국무위원이자 장관분들을 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시거나 외부에서 활동하시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에서 대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농식품부장관님께서서는 농정에 대한 부분들도 진심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위원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발언도 큰 문제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 식용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삭감할 상황도 아닌데 삭감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관련된 법이라고 야당에서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면서 자가당착이라는 발언도 하고 언론에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김건희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을 담아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 법안이고 또 증액하는 부분들을 같이 합의해서 어제 통과한, 의결시킨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야가 바뀌어서 이 사람에게 하는 경종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냥 덮어 두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강한 발언이나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 가지고 계속 가기 그렇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 부대의견은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할 테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담긴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장관실에 얼마 그래 가지고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역에 들어갈 때 운영지원과 등 그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실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표현 넣기가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윤준병** 원래 장관 업무 내용 부서별로 썩 확정을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게 ‘운영지원과 등’ 해서 묶어서 쓰게 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운영지원과에다가 포괄해서 넣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운영지원과를 줄여야 되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장관실, 차관실 이렇게 해서 쪽 간부들 1급들까지 그렇게 같이 묶어서 쓰는 거라서요.

○**소위원장 윤준병** 운영지원과에 부서의 내용으로 묶여 있으면 거기 내용, 하여튼 그 표현은 이후에 하기로 하고 그 정도 내용으로 하고요.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장관에 대한 업추비는 이것이 다른 장관과 해서 실링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운영비를 장관이 마음대로,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는 거지 장관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장관 사기 진

작을 위하고…… 또 정희용 간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데서 호되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79쪽 ODA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2-2에 761억과 63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633억으로 수용한다는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2-4 이 내용에는 감액 의견이 있고 증액 의견이 있는데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현행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현행 유지 정도 해 주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 뭐 감액하자는데 증액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고 사실은 입장, 여건 봐서 가능하면 불용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환인데 지금도 불용이 걱정되는데 증액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현행 유지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그러면 80페이지의 기획협력 243억도 수용으로 보는……

○소위원장 윤준병 어디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80페이지의 2-3번 정부 수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식량원조 그거는 수용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2-3도 현행 유지지요,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현행 유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현행 유지.

그다음에 82쪽, 3-1 수용곤란 이렇게 하고 3-2도 수용곤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촌협약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협약도 하고 정비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내용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약하고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실제 실행의 내용을 좀 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늘려서 지역 농촌의 공간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예산 작업, 뒷받침 이렇게 좀 만들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사업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담겨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경험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게 정착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지역에서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것 보면 한 연말까지 거의 90%

가까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초기 연도에 우리가 예산 배정을 많이 했었는데 연부율을 좀 조정 해서 초기 연도에는 조금 넣고 계획 수립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뒤에 가서 한 4년 차, 5년 차에 많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이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그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실집행에 맞는 내용을 하되 추가로 실집행되지 않는 불용이 될 내용을 신규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실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실제 농촌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뜻이라고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지금 삭감 의견, 예를 들어 290억 됐으면 그중에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해서 그것을 신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 속에 그 내용을 농식품부가 그대로 적용할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여기가 늦어지면 자금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뽑아 놓고, 그다음 대상 후보지들을 죽 뽑아 놓고요. 여기가 집행이 안 되면 빨리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것은 하는데 신규 지정을 농촌이 협약하면 지자체별 신규 협약을 공모해서 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안 쓰는 대신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은 설계를……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예산 조정 이쪽에다 표기 안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예산 조정을 해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차피 내역 안에서 쓰는 거니까요.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여기에다 안 넣어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신규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소위원장 윤준병 신규 많이 늘리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의결됐다 하는 내용을 좀 담아 주세요,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몇 건을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건가요, 지속사업과 신규사업과에서? 내년도 예산 1156억 원에서는 그러면 몇 건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계획상?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92개소가 계속사업이고요, 신규가 30개소입니다. 그런데……
- 송옥주 위원 30개.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거기에 필요한 신규로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은 한 최소한 5개라도 저희들이 더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정리 잘하고 신규로 넣을 수 있도록……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교 위원 차관님,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그냥 임의대로 선정한 겁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김선교 위원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우리 농촌을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공모냐 이것을 여쭙어본 거예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3-2는 나주시와 이미 협의됐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윤준병 83쪽의 3-4는 일부 수용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정부 예산 안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취지는 반영을 하되 이것 증액을 안 해주셔……
- 소위원장 윤준병 취지는 하되 이것은 불수용이네?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이것 원안 유지라고 주장을 하셨으니까요.
-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
- 그다음 84쪽의 4-1 이것은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에도 주택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취지고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85쪽……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84페이지에 4-②번이 있는데요.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 사업……
-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 100억 수용으로……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1은 100억 수용인데.
- 4-2번입니다.
- 조정대 위원님이 여기서 156억을 감액해서 22쪽에 있는 밭농업기계화의 그것을 증액하겠다는 거거든요.
-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때 내용이 이쪽 감액은 안 되고 그냥 증액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취지니까 이 감액은 수용 곤란이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현행 유지하고……

○소위원장 윤준병 현행 유지하고 그 내용은 증액은 증액대로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85쪽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체계를 개편해라 하는 취지의 의견은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특회계로 해 왔고요. 그 취지는 아마 사료 문제라든지 수의 문제라든지 대개 동물보호센터들이 농촌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특회계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예산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른 영역은 일반회계에서 다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특회계도 사실은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부대의견 별지로 깔았는데요.

별지 2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일반회계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수용 곤란 의견이신데……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수용 의견을 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또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5-2에 대한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원-웰페어 밸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40억 원 감액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지금 51억 원 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40억 원은 저희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억 원 증액이 일부 필요해서 순감은 한 16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대신에 사업 전면 재검토는 아니지만 공사비·감리비·부대비 등 여러 가지 집행 내역을 보니까 불용이 예상돼서 5억 3000만 원만 내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 의견에 대한 입장들을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아시겠지만 일반 지자체에서 반려가족과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한 이렇게 과 부서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전 국민이 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설계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송옥주 위원** 내년 설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죽 지자체들 공모를 해 봤을 때 홍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송옥주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내년에 설계를 하고……

○**송옥주 위원** 설계를 하면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설계비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설계비가 10억.

○**송옥주 위원** 설계비가 10억이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윤준병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부분들은 건물 건설 관련해서 공사비 저하로 인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을 지어 가면서 설계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공사비 자체를 다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옥주 위원** 공사비 전체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는 그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송옥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동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동물단체에서는……

○**송옥주 위원** 실험동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환노위에서도 예전에 논의된 부분들이 있는데 동물을 실험동물로 하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다른 것에 대한 고민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추세상.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자유연대나 카라나 이런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저희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송옥주 위원** 더 의견 수립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한 번 더 의견 수립을 하고요.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 없게 설계할 때 그런 것들 동물단체 의견들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1년 후라도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급하게 예산을 담아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 여론 수렴을 더 하고

하는 부분들도 늦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홍성에서 빨리 해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식품부의 주력 사업이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이게 어기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요.

○**송옥주 위원** 어기구 위원장님 사업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또 충남 쪽에서는 이미 선정이 돼서 그 지역구하고 해서 준비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준비를 해 놓고 나서 여론의 무슨 못매를 맡거나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살짝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설계할 때 동물보호단체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선교 위원** 차관님, 저도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그냥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이게 아주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내용만 봐 가지고는 동물단체도 지금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민원이 또 그쪽에 들어오는 그 지역 주민들도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것을 좀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그러다가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고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앞에도 사업장마다 대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완벽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저희가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동물단체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같이 했었고요.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 대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반려동물하고 관련되는 뭔가 이렇게 부지를 만들고 예를 들면 동물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고 이런 것들, 반려동물 공원을 만드는 경우도 그럴 거고 이게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반려동물 인구가 충분히 많이 늘었고……

○**김선교 위원** 제가 여주시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당초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끝낸다 그랬는데 한 10년 가깝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의 참고로 한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하여튼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없게 잘 해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저도 송옥주 위원님하고 김선교 위원님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사업에 대한 동물단체들의 실험동물의 어떤 수급 문제라든지 입주 기업에 대한 부족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국가 예산을 반려동물 개발을 위해서 실험동물까지 제공하는, 시설 건립하는 데 쓴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일부의 동물단체는 반대했지만 또 다른 동물단체는 의원실에 연락이 와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언급했던 문제 중에 동물 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험동물법 제9조에 의거한다면,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그것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실험동물 공급받기 위해서 기업에 이렇게 제공한다 이것도 또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홍성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지도 퀘스천 마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웰셋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거기는 로얄캐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두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험시설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입양 수요가 높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 가지고 일정 기간 실험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정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예산 설계비라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처음, 초도 자금이 태워졌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연속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예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동물 의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사람 의료도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원-웰페어 밸리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는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음성적으로 바깥에서 각각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런 원칙들을 좀 지켜 가면서,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 가면서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런 게 없었을 때 밖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단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실험동물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동물의 수급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실험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는 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R&D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님.

○**이병진 위원** 음성적으로라는 워딩을 쓰셨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민간에게 맡겨야지 국가가, 공공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가 직접 실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에 민간기업들이 입주해서 하니까.

○**이병진 위원** 예산 잡아서 시행한다는 건 벌써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저희는 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병진 위원**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있다면 사이드에서 측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이것을 우뚝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더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결국은 이런 유기견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자, 그것까지……

위원님들은 이것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 생각에는 설계비라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집행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앞의 집행 문제는 내년에 설계, 내후년에 공사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집행 문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입장은 원-웰페어 빨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동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그것을 풀어 드려야지 그냥 집행 문제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동물단체들하고도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부족한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어떻게 챙길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다시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이제 설계비 반영하면 이것 확정된 걸로 하고 갈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상임위에서 해 주시면 예결위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동물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더……

○소위원장 윤준병 조건부로 설계비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상임위에서……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다른 것 논의하고 약간……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 보류했다가 할까요?

○송옥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보류했다가……

다음 88쪽, 농산업수출 활성화 이것도 감액과 증액이 겸용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것 원안 유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원안 유지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8-1도 원안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원안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89쪽 9-1·9-2, 9-1은 신규 6개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임대형 스마트팜 수요도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집행도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1은 원안 유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원안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9-2는 저희가 이번에 고랭지배추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원장 윤준병 수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오케이.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관련해서 스마트팜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현장 가서 이렇게 보면 주로 스마트팜들은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판로 확대랄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만 시킬 게 아니라 집행 과정의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정말 자리 잡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금융대출 과정에서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신규 대출을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로 확대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

○이만희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문대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문대림 위원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해서요 예산과는 좀..... 그러니까 참조하셨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또 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혜택을 받는 청년농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제가..... 네덜란드 호티 센터(Horti Center)라고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거기가 스마트팜 하면 최고의 시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동양의 젊은이들이, 군데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삼사십 명씩 보였어요. 보여 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곁으로 가 봤는데 다 중국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앞선 선진국과의 스마트농법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고민해 주시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일하러 왔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던데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 부분들 농림부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해외 교육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저도 예산 측면하고 조금 다른 측면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문대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스마트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그 예산 또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의 변화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약 6900억 이상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ha의—3000평이지요. 3000평의 유리온실이 됐든 비닐 재질이 됐든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단지를 만들자고 평균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거기의 보통 임대 기준이 1500평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1500평 같으면 그 1500평을 임대하는 데 청년농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임대료니까……

○이만희 위원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임대료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줍니다.

○이만희 위원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연 5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0평을 임대할 때 기본적으로 3명의 청년분들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분들이 1500평에 1년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1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0.3ha니까요 900평 정도 됩니다, 3명이.

○이만희 위원 900평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1ha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세 팀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그렇습니다, 세 팀 정도.

○**이만희 위원** 세 팀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연간 한 33만 원 정도의 저걸 가지고 몇 년 임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3년 임대해 줍니다.

○**이만희 위원** 3년 임대하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마치고 나가서…… 그러면 이분들 3년 임대하고 임대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자립하라는 애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자립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3년 동안 저가의 임대료를 받고……

○**이만희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농민들 중에서, 900평짜리 스마트팜 임대도 따지면 한 20억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20억의 재원으로 지어 가지고 스마트팜만 들어 가지고 농사짓고 임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은 농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농촌에 잘 적용을 시킬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임대형 스마트팜 해 가지고 자립해서 자기 스마트팜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에 비해서 돌아오는 실질적인 농촌의 변화 환경은 굉장히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임대형 스마트팜도 하시면서 노지 스마트팜에 좀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한 가지는 발농업 기계화 부분에 더 많은 저것을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일반적인 농촌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가는 분들의 불만이 ‘너무 단기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기임대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단기도…… 기간도 기간이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몇 분들한테만 너무 집중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지 스마트팜 문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발농업 기계화 문제 같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이, 오전 중에는 끝내야 해서 가능하면 정책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90쪽, 농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 관련된 내용 어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차관, 어제 주문드린 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별지로 아마 배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제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셔서 가입률 10%일 때—그러니까 수입안정보험입니다—15%일 때, 20%일 때, 25%일 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산 추계를 해서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은 이겁니다. 지금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의 내역이 3개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그다음에 수입안정보험,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재해보험하고 수입안정보험, 2개를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합쳐 주시고 여기에 가입 대상자 수 곱하기 평균 단가 곱하기 정부 지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통으로 묶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하면 그것은 재해보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도 좀 더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안 유지 내지는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안정보험 필요한 대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재해보험을 더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대로 작년에 열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도 더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부대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인삼이라든지 다년생 작물들,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재해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더 만들어서 넣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재해보험 수요도 더 늘어날 거고 저희가 수입안정보험도 해 나가면 수입안정보험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내용 중에 ‘대규모 재해 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일’이 아니고 ‘주’가 맞다, 제가 착각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해, 관통하는 거대 재해가 왔을 때 주 8000명 이상의 인력을 일거에 일주일 내에 투입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깔려 있는 자료가, 이 자료가 이제 주신 자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손해평가반 구성의 형태는 보통 어떻게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손해평가반 구성 말씀이신가요?

○**문대림 위원** 반 구성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손해평가사 두세 명 정도로 해서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손해평가사 두세 명 정도……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문대림 위원** 보조인력들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포함해서 두세 명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 두세 명이 포함해서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문대림 위원 보조인력이 단독으로 반을 구성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현장 즉시 투입한 투입 가능한 손해평가인력 1만 1992명 이것을 맨 앞단에 주셨는데 이게 농협손보에서도 동의하는 수치고 내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농협손보랑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 분들이 1만 1992명이구요. 밑에 나와 있는 8372명은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작업을 하는……

○문대림 위원 농협손보에서는 8349명이라고 제출했거든요.

어쨌든 현재 이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 목표를 너무 크게 잡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안정보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없이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금주 위원님이 또 폭탄선언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문금주 위원 저는 절대 반대예요.

○문대림 위원 제가 보기에……

○문금주 위원 삭감.

○문대림 위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기존 9개 품목 그리고 추가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사업 전환을 한꺼번에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9개 품목 본사업, 6개 품목 시범사업으로 간다는 안 아닙니까. 15개 품목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가고 가입률 25% 저는 이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가입률을 15%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예타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해소하고 추진하는. 그래서 여기서 수입안정보험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채소안정보장제라든가 재해 대책과 관련된 감액된 예산은 증액시키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주신 대로 가입률 15% 여기에서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예타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했으니까 한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예타는 생략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할 거고요……

○문대림 위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법은 지금 발의가 하나 돼 있으니까 사실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입안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해가 날 경우, 그러니까 재해가 날 경우에 재해 조사가 문제니까,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게 수입안정보험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 가입률 52%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재해보험이 줄고 수입안정보험으로 바뀐다 이런……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재해가 났을 때 조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했으니까요.

다만 수입안정보험으로 하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재해보험만큼은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하면 재해보험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입안정보험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충분히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깐 해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해보험으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수용하기 곤란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재해보험이랄지 채소가격안정제 올해 수준으로 다시 다 복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관님, 재해보험 자꾸 잘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 듣는 농민들의 아우성은 차관님한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손해평가 한번씩 왔다가면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그분들한테 농민들의 보장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끼는 게 너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재해보험도 그러는데……

이것 어차피 수입안정보험도 자부담을 다 또 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할인율이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것도 할인을 적용될 겁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재해가 농민들이 잘못해서 재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농민들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보험 좀 받으려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으로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농민들한테 희망고문시키는 거고 농민들 두 번 죽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도……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면 종합적으로 한 번 하고 결론을 내야지 건건이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갑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예.

차관님!

우리 재해보험 부담률하고 농가에서 수입안정보험 부담률의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비슷합니다만 수입안정보험은 약간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우리 남해의 시금치가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 현장을 저도 갔다 왔고. 그 현장 농민들 채소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이론을 제가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 수입안정보험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사실상 한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그리고 남해를 예를 들면 남해 전체를 재해구역으로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재해지역에서 제외된 곳의 피해 있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지금도 사실 지역에서도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부분에서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는 데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농가의 수입가격, 가격을 지금 보장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매년 농가의 수입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농업재해라는 것은 매년 오는 게 아니고 1년에도 두 번 왔다가도 두세 번 오기도 하고 또 3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재해 수준이 아닌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얘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담률이 비슷하다면 수입안정보험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이 저는…… 현장여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송금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송옥주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옥주 위원 문금주랑 송옥주를 짬뽕을 시키셔……

○소위원장 윤준병 죄송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차관님과 농림부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 중에 가입률 10%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입안정보험을 완전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또 정책의 지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아예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였는데 실제로 3.3%밖에 가입을 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갈아타기하는, 농민들이 갈아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률 1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재해보험보다 수입안정보험이 지금 농식품부의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농민들의 자기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률을 낮춰 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가입률 10%도 내년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희용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것도 너무 오래 끌면 그러니까 제가 좀 조정안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저는 이게 본사업으로 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발표하기 이전에는 예타 문제나 법적 근거 문제나 사전에 준비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본사업화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인지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게 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동안에 추진돼 왔는데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내역사업에서 빼 버리겠다 그리고 치유해서 오라 그러면 정부의 또 계속성 문제나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나마 시범사업으로는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게 9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9개 품목이 지금 3% 하는데 일정한 수준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높이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9개 사업도 시범사업에다 넣는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하자, 하자는 있지만.

그리고 이 시범사업 때문에 이것을 본사업화하겠다고면서 제외했던, 삭감했던 재해보험, 채소가격안정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복원시킨다 그리고 추가로 시범사업 9개 사업을 15개 시범사업으로 늘리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자.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실제 법적 근거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기에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문대림 위원 가입률까지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가입률은 저는 이것 너무 높여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시범사업 했던 것 예전에 15%…… 시범사업 했던 내용은 15%, 신규로 하는 것은 10% 이렇게 조정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농식품부가 시범사업도 제대로 한번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본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제도적인 정비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한 1500억 이 정도 증액되는데 그것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 뒷받침하면서 본사업이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현장 여건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2025년도가 되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15%, 10%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꼭 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추계할 때 넣는 것이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하실 때,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는 그 프로테이지로 예산 추계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을 잘 활용해서 정부가 하시고, 그것은. 예산서에다 15%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넣을 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서에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를 그냥 묶어서 하나로 해 놓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도 정책보험이라는 내용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 하고 있잖아요, 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 그대로 해서 거기다 그렇게 녹여 넣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소위원장 윤준병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역사업이니까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는 내역사업 인만큼 전용하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체계를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운용해서 정부가 효율성 있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금액을 한번 계산해 가지고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지금 한 5000억인데, 6500억 내지 7000억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계해 보면. 그 프로테이지로 하면. 그것을 추계해서 그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대신에 그러면 재해보험은 가입률을 조금 더 우리가 높이는 방향으로……

○소위원장 윤준병 높여도 조금 채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52% 가입률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늘린다면 늘리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저도 한 가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여기 아까 위원장께서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예타라든지 법적인 절차의 미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타 조사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 말씀은 이게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문대림 위원 예타는 넘어가기로 했고.

○이만희 위원 정부 입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예타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해서 기재부하고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예타 관련되는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이만희 위원 그러면 법적 절차의 미비점은 어느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법적 근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말씀,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 절차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또 한 가지, 두 번째 위원장님 제안 사항들 중에서는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25년도도 시범사업으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시고 정부 측에서는 이걸 본사업화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사업으로 넘어갈 만큼 정부 측에서는 시범사업을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시범사업을 15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거의 10년은 넘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면서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쪽 설명을 했었고 어쨌든 수입보장보험이 보장 범위나 이런 것 농가들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농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도 충분히 재해보험 가입했던 분들이 수입안정보험으로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도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법적인 절차의 미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하고 어떤 협의도 이미 거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 자체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본사업화하겠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해서 이제 본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 또다시 1년의 시범사업을 더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가 예측성에 대해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다시 위원장님 제시하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는 어투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 부분은 그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어떤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농가의 어떤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업화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조정안은 제가 보니까 말이 시범사업이지 거의 본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상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지 저는 거의 본사업을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조정안도 솔직히 받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농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농림부라면 기본소득을 아예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경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자기 부담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담 들어가서 또 연말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 자기 부담한 것 그대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보험이라는 형태로 농가소득을 보장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생각입니다.

○**이병진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위원님 말씀.

○**이병진 위원** 저는 말이지요, 항상 이런 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종의 편법, 이 개념이 약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를 더해서 말이지요. 재해는 보조적 수단으로, 보험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농민기본법을 또 발의를 했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각 부문 우리가 오곡이라고 하는 쌀, 보리, 밀, 옥수수를 어떻게 하면 또 생산성을 더 제고시키고 거기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해서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농림부가 그런 쪽으로 모든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거지요. 소위 미봉책이라는 거지요.

지금 예타는 면제가 됐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는 사실 미비한 걸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법과 제도의 틀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누구의 공격을 받아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 시간에 시범적으로 가서 말이지요, 더 농민의, 정말 기본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선택을 통한 역량 집중에 매진해야지 진정 우리 부의 주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자꾸만 타협적…… 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문금주 위원님의 안에 저는 이게 삭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대로 갖추어진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미봉책의 연장선상의 연장선상의 길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면서 진정 우리 부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입안정보험을 하자는 것도 다 농가의 소득이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업·농촌 기본법에도 있고 정부가 농가의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이나 수입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드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정의 한계도 있고 저희가 또 그렇게 지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3조 4000억 내년에 직불제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농가당 1년에 평균으로 따지면 340만 원이 가는 겁니다. 5조까지 가면 농가당 1년에 500만 원이 갑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 생각할 때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세유 혜택 이런 것까지 따지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농가 소득의 30% 정도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고 30% 정도는 농외소득이나 이런 걸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한 30~40% 정도는 정부가 직불금으로 주고 농업소득 이렇게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해 왔었고 지금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5조로 가게 되면 농가소득이 전체 5000만 원으로 5조가 되면 직불금만으로 10%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대 지원까지 하게 되면 거의 30%가 차게 되는데 지금 수입안정보험을 하자는 얘기는 어쨌든 기후변화가 오고 자연재해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응하기도 벅찬데 거기다 농가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 불안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 불안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서 돈으로 그냥 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방법을 가지고 외국에서 여러 번 실험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어렵다는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져 보다가 유럽은 직불제 방식으로 갔었고 미국은 이런 보험 방식으로 갔었는데 저희는 직불금도 늘리고 보험도 도입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좀 더 두텁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금도 늘려 가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보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 타당성, 법적 근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없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사업타당성과 관련돼서 확인을 해 봤어요, 기재부의 예타과에. 예타과의 입장은 농식품부에서 예타 검토 신청자체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서 검토된 바 없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 예산 부서는 농식품부에서 이게…… 부기사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내역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내역사업. 내역사업이어서 그 내용과 관련되는 같은 단위사업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81억 정도, 4000억, 5000억의 81억이면 내역사업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2000억으로 늘어요. 그러면 이게 내역사업입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이 돼서 실제 예산의 내용이 맞는지 더더군다나 재해보험의 내역사업이 되려면 재해보험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에 포함돼야 그게 내역사업이지 내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그거를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도 크고 내용도 다른데 내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전에…… 강변하면 안 된다, 이것.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넣으면 통과되면 되지요. 그러나 예산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배치돼 있으면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용해야지 그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지금 만들려고 입법 노력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걸 시범사업 오랫동안 했어요, 시범사업 오랫동안 한 내용이 3%예요, 3%. 오랫동안 해 놓고 본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을 통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50%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50%에 근접한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요. 그래야 그게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3% 수준 유지해 놓고 시범사업 할 만큼 했다, 시간만 끌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한 겁니다.

그 내용 염두에 두시고 계산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계산해서 이 내용 계산 나오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3쪽 12-5 이거는 매년 60억 부족한 상황이니까 감액은 어렵다 이런 얘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3-1 이것 했는데 홍보비는 줄이고 교육비를 좀 늘려 보겠다 이 내용도 어디 들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나눠 드린 자료 맨 마지막 16, 17페이지 보시면 교육 내용 쪽 정리를 해 놔는데요 여기다 저희가 조금 더 늘려 가야 되는 게 올해, 작년에 우리 겪었던 대로 과수 재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재해하고 관련된 대응 교육 이런 것들 조금 더 늘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한 70 대 30 정도, 홍보비 70, 교육 30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50 대 50까지 이렇게 줄여 가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FTA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데 FTA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해 봐야 염장만 지르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재해 대응 교육……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홍보비는 전액 삭감하시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전액 삭감보다는 교육·홍보비로 묶어 주시면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조금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홍보를 뭐 FTA 홍보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FTA 대응해서 농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니까요.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홍보비로 쓰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전제는 그러면 이 내용은 농식품부가 제대로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이런, 또 거기에 진작할 수 있는 홍보 이런 내용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홍보비와 교육비를 5 대 5 정도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7을 교육을 하시고 3을 홍보로 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홍보비를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홍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언론에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농가들한테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홍보고 이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홍보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취지를 아실 테니까 교육을 더 많이 늘리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도 부대의견 달아 드릴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달아 주셔도 괜찮고요. 저희들 안 달아 주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부대의견 없이 원안 유지입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예, 원안 유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2-5 감액은 수용 안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원안 유지.

94쪽, 14-2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일 사업에 여러 가지 증액 요구 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거는 9억 19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전체적으로 묶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다 묶어서 그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묶어서 9억 19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95쪽 14-3, 이것도 전체적으로 묶으면 얼마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 증가 전체적으로 8만ha에 해당되는 내용 제대로 하고 작물별 유인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설계를 해 달라,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6페이지 보시면 전략작물 확대해 가지고 8만ha 감축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략작물직불에 1720억 증액이 되면 여기 말씀하신 취지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720이 되면 8만ha를, 실제 생산 조정으로 벼농사에서 전략작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실제 작물을 좀 추가하고 그다음에 작물별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가도 인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만ha인데 자연감이 보통 한 8천ha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만 2000ha를 저희들이 더 줄이면 되는 것이고……

○소위원장 윤준병 실제 자연 감소되는 것 포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기존에 정부안 담긴 것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하면 8만ha를 전부 다 커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묶어서 1720억.

대신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공익직불금 개편하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기본형 중에 소농직불금 지금 130만 원으로 5% 인상한다고 돼 있던데 저는 소농직불금 그거 10%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지금 120에서 130으로 올린 건데요. 그거를 더 올려 버리면 면적직불금도 거기에 따라서 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면적직불금은 또 다른 기준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농이 0.5ha 미만인데 그러면 0.7ha 하는 사람보다 소농이 더 많이 받아 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면적직불금을 또……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을 좀 조정하시되 면적직불금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늘린다고 예전에 얘기했던데, 거기도 세 구분이 있잖아요. 세 구분 있는 내용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늘어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비율도 감소하고 소농직불금은 최대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5% 가지고는 이거…… 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그 설계를 하실 때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내용은 예전에 기준 17, 19 기본요건 할 때 남은 내용이, 3000억 증액했는데 1000억 밖에 안 썼다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신청이나 이런 것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지금 2000억이 잉여가, 남아서 이월되고 있으니 올해까지 하면 한 4000억 넘을 것 같은데, 내년 넘어가면. 그 내용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전락작물직불금 1720억 그다음에 지금 구조 개편하는 것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수사항을 안 지켜서 감액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8만ha 감축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걸 안 지켜서 이렇게 직불금을 회수당하는 경우에 그 직불금을 지킨 사람한테 없어서 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걸 페널티 주는 것은 또 영역이 있고, 그걸 기재해서 쓸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94쪽에 정부에서 아까 9억 1900 수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묶어서 수용인지 아니면……

○소위원장 윤준병 다 묶어서 수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9억 1900.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다음에 95쪽도 14-3, 14-4까지 묶어서 1720억.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다 묶어서.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4-5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가루쌀 감액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같이 묶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그것도 묶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우리 한 15분만 정회하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윤준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쪽, 15-2는 정착률이 92%여서 수용 곤란하다는 뜻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6-1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감액분율’ 이것은 삭제하고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97쪽 17-1번, 이미 감액되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96페이지는 지금 감액은 불수용인데 16-1 증액 동의를 하시는 건지 좀……

○소위원장 윤준병 증액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감액분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감액분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면 수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조건을 빼 달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감액만 안 하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감액하는 쪽에서 연계시키지 말고 증액을 순수하게 해 달라 이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두 개가 지금 세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채소가격안정—64페이지에 73번 있는데요. 채소가격안정지원 512억 증액은 정부에서 그때 수용 곤란인데 수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그것은 다 수입안정보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수입안정보험하고 연결되는데 채소가격안정제는 원대복귀를 시켜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그게……

○소위원장 윤준병 원대복귀를 시키는데 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집행률이 낮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수입안정보험하고 채소가격안정지원하고 재해보험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물려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게 원대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 패키지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아시겠습니까만 채소가격안정제는 기본적으로 품목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여서 집행률이 보통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증액을 안 시켜도 되실 것 같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원대복귀는 시켜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내용은 조합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조합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줘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수입안정보험하고 똑같이 다 얹여 있는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안정보험을 만약에, 뭐 지금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신청이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게……

○소위원장 윤준병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정부안을 금액은 유지를 시켜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쓸 수 있거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문제는 채소가격안정제가 지금보다 500억이 줄어 있으면, 채소가격안정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소위 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한 제도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수입안정보험에 만약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채소가격안정을 저희들이 적용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의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수입안정보험이 올라가면, 그런데 그러면 채소가격안정은 줄 수 없으니까 채소가격안정 금액을 늘려 봐도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어차피 이게……

이건 단위사업인가요,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적으로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내역이 달라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내역 안에 있으니까 다른 걸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같이 못 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재해보험 내역에 들어 있지 않은 거여서 재해보험 틀 속에다 넣으면 그것 좀 줄여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올라가면 그러면 채소가격안정을 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여기가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20% 이상씩 수입안정 구간이 올라간다면……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전제로 하면, 선택이잖아요. 올라가면 채소가격안정제가 실제 줄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행 수입안정제 본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제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 그 상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감액하겠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채소가격안정제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두 군데를 다 늘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안정보험도 증액을 시키시고……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1720 이쪽은 그대로 가고 이쪽 채소가격안정제는 원대복귀를 시켜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수입안정보험도 똑같이 금액을 넣어 주셔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1720억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채소가격안정제…… 마찬가지로 않아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정해 가지고 나왔을 거잖아요. 다만 그 재원을

1720억 늘리는 데 채소가격안정제에 있는 자원 가지고 이쪽에다가 옮겼습니다 이런 얘기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예산을 늘려봤는데 만약에 수입안정보험이 늘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내년 결산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염려하지 마시고……

○**서천호 위원** 차관님, 채소가격안정 현재 지원금액이, 채소 품목이 지금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73-1의 512억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증액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지금 현재 채소가격안정지원금은 현재로 유지를 하고 이 지원금만큼 필요한 이것은 이렇게 전환해서 증액을 하면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채소가격안정제 증액을 시켜 주시는 것은 저희들……

○**서천호 위원** 아니, 증액분을 현행 유지를 하고 이만큼 증액분을 수입안정보험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저희 좋지요.

○**이만희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수입안정보험을 대폭 삭감하고 옛날 것들을 그대로 가자는 거지 원복시켜서, 그 의도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천호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채소가격안정지원금 자체가 채소 품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선택 폭이 엄청나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쨌든 수입안정보험을 지금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현재의 채소가격안정지원금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이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양쪽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거든. 또 선택의 기회도 더 넓혀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내용은 결산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결산보다도 실제 제도적인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 부담을 줄이고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것 수용하는 것으로, 512억.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지금 채소가격안정제에 포함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7개 품목입니다, 5대 채소하고 대파하고 감자 들어가서.

○**이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채소가격안정제 품목이 거의 500억대 예산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그 내용상의 집행률을 보면 몇 % 내외입니까, 평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550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500억은 불용 처리해 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어떤 실효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니까,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이 제도는 일부 유지는 하면서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안정보험을 통해서 좀 더 농가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그 의도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지금 원복시키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원복을 시켜 가지고 이 재원 자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수입안정보험 자체를 줄이자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 외에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금을 준다든지 출하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이 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잘되게 계속 유지를 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에 주는 돈 그것은 수입안정보험으로 흡수를 시켜서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이게 512억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입장은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농가 소득보장이 아니고 수급조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잘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의 증액 소요가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것 내용은 이후에 수입안정보험 전체적으로 결론 낼 때 그것 증액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97쪽 17-1번 이미 이것은 감액이 돼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미 감액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에 대해 3억 하되 공모로 하겠다 이런 얘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3억은 증액하는 것 수용을 하고요. 밑의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미 감액됐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잠깐, 이게 자꾸 제주 얘기만 나오면 공모, 공모 하는데요.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지정 없이 유치한 지자체는 몇 군데 돼요? 공모하고 그냥 공모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저희 다 공모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맞나요? 지금 확인 가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전부 다 공모하는 것으로 지금……

○문대림 위원 전부 공모 맞습니까,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대림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총 몇 개 사업 지금까지 진행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까지 9개……

○문대림 위원 9개 전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정됐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쌀, 논타작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함께 하지만 농업정책에 있어서 제주 홀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꼭 한 곳만 필요합니까, 추가로 더 해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야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들 유기농 계속 늘려 가야 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여기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것 두 곳 다 해도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은 저희들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공모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어쨌든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도 2개소로 하더라도 공모는 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지금 강원, 제주가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충북 전남 전북 경기 충남 경기 경북 전남,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하고 제주가 없습니다.

○문대림 위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9개소가 전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곳이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은……

○문대림 위원 아까 전부 공모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번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넘어갔고.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상만 그간에 9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3개는 공모를 했고 6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3개 공모, 6개는 지정 아니면 유치 아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맞습니다, 예.

○문대림 위원 제주만 올라가면 계속 공모 공모, 어저께도 공모, 오늘도 공모……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다음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알겠습니다. 이것 2개 늘려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6억하고 두 군데 해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19-1 가루쌀, 수용 곤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걸아까 전략작물직불을 늘리면서 어쨌든 8만ha를 줄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소위원장 윤준병 이제 늘리는 건 좋은데 실제 가루쌀 내용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냐, 소비가 되고 있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저희가 가공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붙였습니다. 사업들을 같이 붙였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하신 단지화나 특화단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요.

○소위원장 윤준병 거기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삭감하자고 됐는데……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나머지는 확인할 게 없지요?

또 19-8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지역을 명시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걸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은 다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올라온 내용 지역 특별히 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것? 공모로 안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애로점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지금 잡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증액이 되는데 신청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다른 데는 안 찍혀 있는 데들이 신청하는 데가……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포괄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이 어디 항목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거기에 포괄비,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내용 말고 포괄비로는 얼마 들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현재 정부안에 들어 있는 게 18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8억, 이걸 18억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공모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일단 예결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기본조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착수하기 전에 기본조사 하는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요. 기본조사비에 18억 들어 있고 18억 들어 있다고 그러면 여섯 곳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소위원장 윤준병** 2개소인데, 기본조사비 각기 3억인데, 2개소가 18억이면 9억씩 들어 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닙니다. 계속지구 1개, 신규착수 2개, 기본조사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기본조사 2개소 들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내용을 넣되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포괄비 전체적인 내용 다 넣어서 증액시키고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을 최대한 존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증액은 정부가 수용한 증액 규모로 하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소위원장 윤준병** 예, 증액으로, 묶어서.

그다음에 102쪽 정부매입양곡비, 지금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하자고 지금 제시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어쨌든 농협한테 이미 그런 걸 한 거고 갚아야, 지급해야 되는 돈이니까 이걸 깎아서 버리면 지급할 수가 없게 돼서 그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예요. 물론 채권이 발생했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농협의 입장에서 5000억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차피 채권이 발생돼 있으니까 시기 문제이지 안 오지는 않을 건데 이 사이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재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공공비축미든 시장격리곡이든 이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이상의 추가적인 격리를 해 줘야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까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쌀 수급안정 예산이 5페이지에 있습니다. 2조 5600억 올해 예산에서 2조 7000억까지 늘렸고 타작물 재배가 됐든 고품질 쌀 생산, 수급조절, ODA 이렇게 돼 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서는 별로 작동 안 해서 계속 쌀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김선교 위원 쌀값이 계속 떨어진 게 아니지, 지금 보합세지.

○소위원장 윤준병 떨어졌지요, 200원도 떨어진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0월 25일부터 매일 농협 RPC에서 어디에다가 쌀을 얼마만큼 어느 가격에 팔았느냐 그걸 전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어제 조사한 걸 보니까 떨어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부터 농협 하나로마트가 쌀값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파는 RPC들이 쌀값을 높여 받을 수 있고 그 쌀값을 높여 받으면 농민들한테 사는 벼값을 높여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대형마트들도 다 올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요. 아마 내일 자로 쌀 최종 생산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10a당 524kg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생산량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반응이 훨씬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민간 RPC들도 쌀전업농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쌀값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자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어서 아마 분위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 달 전에 장관께서도 그랬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오늘 확인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제 쌀값으로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10월 5일인가요, 그때 수급 안정대책 발표한 게 언제지요,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0월 15일 날 예상 생산 나올 때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이후에 계속 안정대책이 나오니까 좋아진다고 그랬고,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고 그런데 두 해에 걸쳐서 지금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우리야 정부 당국자 얘기 듣고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데……

문금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금주 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예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니까요.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분위기를 타야지 자연스럽게 생산량 감소해 가지고 분위기 좋아지면 그것 되겠어요? 그러려면 농림부가 뭘 필요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말이지. 그 자리에 아무나 앉아서 다 하겠네, 그런 얘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걸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이 자꾸 수급조절 말씀하시는데 수급조절 잘해서 쌀값을 올려 주는 게, 쌀값을 안정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떨어져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차피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아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치유를 조속히 해라, 이 내용은. 대신에 여기에 부대의견을 달면서 실제 명시적으로 증액은 안 시키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11월 15일 그다음에 25일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15일 나오는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시장 격리 15만t 추가로 더 하도록 우리가 권고한다 이 내용 넣으면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 15만t이든 20만t이든 30만t이든 더 추가로 격리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쌀값이 올라갈 거냐 그건 제가 자신하기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습니까만 지금 조합들이 작년의 적자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로부터 쌀을 안 사려고 하고 다음에 싸게 사려고 하는 그 유인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 것이지 시장에 쌀 공급이 과잉이 되고 정부가 쌀 격리를 덜 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격리를 더 하자는 그런 의미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시장 분위기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농협은 어쨌든 싸게 사려고 하고 있고 그걸 어제 농협중앙회에서 그 발표를 했으니까 조금 더 달라졌다는 얘기고 제 생각에는 이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나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합들이 농업인한테 산 벼값 그것은 목표한 것보다 좀 덜 나올 수는 있는데 1월 이후에, 다 사고 난 다음에 조합들이 쌀을 갖고 있으면서 시장에다 쌀을 팔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볼 겁니다, 조합들이. 그 이익을 어떻게 농업인한테 돌려 줄 것인가 그 계획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그 내용이 그렇게 돼야지요. 대신에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안 사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79%가 조합 RPC나 DSC에서 재고로 사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안 사, 그러면 여하튼 이후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줘야 시장에 나와 있는 물동량이 적어서 그게 가격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어느 주체에 있느냐, 총량으로 어떻게 있을까요? 이게 수급이 맞아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주체가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조합에서 소극적이니 조합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정부에서라도 해서 격리해 놔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어차피 정부에서는 시장격리했다가 또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지 기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룸을 키워 줘라 이 얘기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그 내용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지금 양곡 매입 관련해 가지고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사고 그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자는 시장 이자율로 주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몇 퍼센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최명철 3%…… 우리가 돈을 빌릴 때의 시장 이자율로 합니다.

○이만희 위원 시장 형성된, 무슨 다른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건 아닙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농협 입장에서는 때일 염려가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사업의 일부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대출 이런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지주가 하니까요.

○이만희 위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정책 저리로서 무슨 농협에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지금 시중의 이자율이 한 4% 되는데 이걸 1%씩으로 받는다든지 지급하는 이런 혜택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건 아닙니다.

○이만희 위원 당시에 정해진,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에 따라서 그 100%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농협 입장에서는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농협이 결코 정부에 돈을 빌려줘 가지고 무슨 손해 날 만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적으로 정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시장격리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결국은 쌀 생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많은 정책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략작물 어떻게 한다부터 농토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8만……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연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쌀을 생산하고 수매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질이나 이런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는 게

있는 반면에 그걸 받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병충해에도 취약한 점이 있고 다수확 품종, 그렇지만 그 생산된 쌀들이 시장에서 호응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것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줄이는 방향으로 농토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쪽에만 계속 집중을 해 왔지만 정책적인 방향은 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시장의 환영을 받는 그런 품종으로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맞는 얘기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쌀 산업 구조개편 방안 만들면서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쌀 유통 기준 바꾸는 게 싸라기 혼합 비율을 3%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 차관님. 우리 시간이 정책 내용 오래 갈 수 없으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이것 양곡 매입비하고 같이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조금 길더라도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연관되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해 주고……

○**이만희 위원** 왜 제가 말씀할 때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회의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12시까지 하려면 몇 분 안 남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그런 부대의견을 한번 검토할 테니까요. 염두에 뒀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103쪽, 농촌용수개발 관련해서 죽 이 내용도 여전히 신규 사업으로 증액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기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습니다. 다 수용 가능한데 지역을 달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여전히 이쪽의 사업 집행률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73%, 뒤에 또 있습니다만 육십몇 %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내용은 저는 여력이 한 5%, 10% 감액해도 된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 감액되는 내용을 신규 지구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 지구 지정하는 예산을 좀 늘리고 여기 리스트업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감액보다는 하여튼 증액으로 해 주시고……

○**소위원장 윤준병** 증액을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지구들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증액하려면 이쪽에, 어차피 예결위에 가면 이 내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신규로 늘려

줘야 예결위 가서 그 내용이 수용이 되지 그냥 증액만 능사 삼아서 가면 그것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만 이걸 감액하고 이걸 증액하고 가도 예결위 가면 증액은 안 받아 주고 감액만 해 버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가서 그 내용을 환기를 시켜야지요, 우리가 논리를 잡아서. 이쪽 내용은 그렇게 이쪽에서 조건으로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이걸 용수 개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이제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전부 다 재해대응예산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저조했으니까 그 25%만큼 삭감을 하고 신규 늘렸던 거 다 늘리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전체 증액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식량정책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SOC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80%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실집행으로 다 할 수 있는 농업 SOC이기 때문에 실집행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농식품부 입장에서야 자본 이렇게 해 주고 배정해 버리면 끝나니까 100% 다 집행됐다고 그러지요.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력이 있으면 좀 확보해서 신규사업 지정을 좀 더 늘려 줘라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 표현을 달면 이제 혹시 제가 예결위에 와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넣어서, 어차피 주머니 문제잖아요. 계속비 그다음에 준공되는 지구, 계속사업지구, 신규 지정, 새로 신규 지정도 이미 지정된 것 기본사업 착수하는 데가 있고 신규 지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신규 지구 늘리는 걸로……

○**소위원장 윤준병** 내용 풀로 넣어 놓고 이쪽 계속사업비, 준공사업비에서 남는 내용을 이쪽으로 좀 넣어서 전체 금액은 똥똥이 좀 만들어도 좋은데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전체 표현은 ‘감’이라는 표현만 안 들어가고 ‘증’으로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서 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하되 여기 지금 리스트업된 내용은 최대한 존중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감액은 없고 증액만 하고 지역은 비명시하는……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죄송한데 102페이지에 농협채권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고 시장격리 20만t은 공공비축은 증액 그건 정부 비동의인데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이 여력이, 이거는 7000억……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0~3번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증액을 안 하셔도 기존에 우리 채고미 쌀 갖고 있는 걸로 쓰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앞에서 ODA에 쌀 15만t 되는 거 20만t으로 5만t을 더 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반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APTER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제 문제는 공공비축이나 시장 격리 아까 얘기한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부대의견을 달든지 이렇게 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 부대의견이 필요하면 추가격리를 저희들이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러니까 그건 부대의견에서 촉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리시설 개보수는 총액계상사업이어서 지역 자체를 못 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일단 못 답는데 어차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존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다음, 114쪽 배수개선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것도 다 감액 없이 증액으로만……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다음, 122쪽 농촌용수관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123쪽 동일 사업에 증감이 들어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축산시설 현대화는 금년 예산 26억인데 내년에 18억으로 일단 먼저 감액을 저희들이 했고요. 개소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연부율 조정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올해는 90% 이상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현행 유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현행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현행 유지, 전부 묶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증액 없이 현행 유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축산국 전체가 증액 없이 원안으로 가는 걸로, 123, 124……

○문금주 위원 좀 증액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축산분야 ICT 융복합 이거는 현행 유지고요. 25-2, 25-3은 수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건 수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25쪽.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비축지원 26-1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비축 예산이 수입 비축, 국내 비축 합쳐 가지고 같이 있는데 수입비축은 아시겠습니까만 TRQ 물량은 저희가 의무수입 물량이라서 그걸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입비축 줄이려고 깎아서 버리면……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는 부대의견 좀 달자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현행 부대의견 22번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127쪽 이것도 감액도 현행 유지, 분쟁이 증가하니까 현행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농지연금사업 있잖아요. 그때 농지연금사업 중에 수시 인출하는 내용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것 약속해 놓고 예산 없다고 중단하고 그러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일단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얼마가 담겨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찾아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좀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지나간 부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111쪽에 아까 수리시설 개보수 22-3번 이게 증액 규모가 다르거든요.

○소위원장 윤준병 증액, 뭐가 달라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증액 규모가 1419억 하고 207억 2개가 있습니다, 111쪽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거는 더 큰 걸로 담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다음에 114쪽에도 동일한 사항이 있는데요. 114쪽에 23-3번도 증액 규모가 다릅니다. 조경태 위원님 915억, 정희용 위원님 276억.

○소위원장 윤준병 276억이 맞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진 915억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102쪽에 아까 20-3번 그거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 주면 어때요, 5만t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5만t, 위원님의 취지는 수급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5만t을 그러면 여기다 더 넣으시더라도 부대의견에 다서 가지고

그러면 24년산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5만t 24년산 넣고 예산증액 규모 넣고요.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려면.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증액은 없이 부대의견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증액. 공공비축미 5만t.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앞에 ODA 아마 그게 5만t 더 늘어났습니다. 그걸 10만t 늘리는 걸로 바꾸고 부대의견에 24년산으로 해라 그렇게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5만t을 10만t……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만t 증액을 더 해 주셨거든요. 15만t에서 20만t으로 그걸 25만t으로 그러면 올려야 되고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아 주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러면 일단 이 내용하고 쟁점 있는 것은 이후에 하시게요, 일단 빨리 끝내놓고.

감액요구사업,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감액요구사업 2건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인프라와 관련해서 감액 필요 의견이 있고요.

130쪽에 종자원 종자유통조사 사업 감액은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29페이지 개 식용 종식하고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늘려 가야 합니다. 아마 잔여건 문제 걱정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는 좀 적극적으로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감액 안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감액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27-1번이요, 차관님.

○소위원장 윤준병 127쪽?

○서천호 위원 예, 127쪽입니다. 이걸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2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농민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게 제일……

○서천호 위원 절차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피해가 막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항공 방제로 해서 대단지애 평야지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과수원과 논밭이 같이 있는 곳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고 또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입장이에요. 피해 실태조사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원안 유지를 해서 그와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우리 농림부에서 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서천호 위원님, 이거 원안 유지하기로 결정했었어요.

○서천호 위원 예, 그런데 그 취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감액요구사업 됐고요.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부대의견은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하기 전에 부대의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31페이지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께서 전남, 경남 1개소를 부대의견에 명시하자. 그런데 이 예산안 증액 신청을 경북에서도 하고 충남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신청한 데를 다 명시하는 방법 아니면 예산을 늘려 놓고 취지를 농림부에서 반영을 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규모를 좀 늘려서 4개 광역시 단체에 신청을 했는데 2개만 명시를 하는 건 조금 상실감이 있을 수 있어서……

○문금주 위원 장흥은 3년째 지금 두 번이나 물먹어 버리고 다른 데는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1년 뒤에 또 해도 되잖아요.

○정희용 위원 해 놓고 같이 해도 되고 그거는 아예 부대의견에 명시를 해 버리면……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일단 상임위에서 4개소 증액해 가지고 4개소 지정해 버리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문금주 위원님 그렇게……

○문금주 위원 하세요. 제 것만 안 깎이면 됩니다. 또 예결위 가면 이것 다 깎여 버릴 가능성이 있어.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건데 사업 자체에 집행해야 될 장소까지 전부 다 여기서 지정해서 나가는 것들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농림부가 충분히 존중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소를 아예 딱딱 찍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성격의 어떤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어제 나름대로 의결된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그 내용은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대신에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결정한 바가 있어서 가능하면 내용은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정희용 위원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어제는 1개소 4억을 결정을 했는데요.

○정희용 위원 어제 2개 했잖아요. 2개 해서 8억이 됐는데 4개 해서 16억이 들어가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개소 16억 하고 부대의견은 빼는 걸로……

○정희용 위원 부대의견 위원장님 말씀 존중해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부대의견은 지역을 명시를 그러면……

○소위원장 윤준병 어제 지역 명시하기로 했어요. 어제 지역 명시했으니까 4개소 명시를 해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개소요?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이렇게 소위 자료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넘어가기 전에도, 선택해야 될 사항이 122쪽의 24-3번 증액 규모가 106억·46억 2개가 있어 가지고요.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수용하는지 명확하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06억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무조건 큰 것……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부대의견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부대의견은 별지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일단 2페이지 보시면, 3번에 일반회계 이관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인데 수용하신다고 아까 하셨고요. 수정 내용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의 7번은 신동진비, 7-1·8-1이 있는데 어제 정부에서 신동진비 예산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을 어떻게 하실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 몇 번이지요, 부대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별지 책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별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별지, 별도 깔아……

○정희용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희 위원님, 이것 보셔야 돼요.

○문대림 위원 없는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자료 밑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윤준병 다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다시 설명드릴까요?

2페이지의 3번은 수용 곤란인데 정부가 수용을 한다고 바꿨고요.

4페이지의 신동진비 관련 7-1·8-1은 정부 의견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안 제시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수용하실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의 18-2번하고 11페이지의 21번이 대안 제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촉지원 관련해서는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소위에서 3건 부대의견 제시가 됐고요. 오늘 업주비 지금 보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공간·재해보험·양곡관리·정부양곡 추가로 지금 몇 건이 더 제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의견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페이지, 1번 무기질비료 이것은 아마 예산이 증액이 반영이 됐으니까 부대의견 굳이 안 달아 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 앞에서 심의하실 때 많이 넣어 주셨으니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1-1은 수용 곤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1-1은 굳이 안 달아 주셔도 예산을 충분히 달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두 번째, 개식용종식도 예산을 아까 논의를 하다가 지금 보류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충분히 증액이 된다면 이것도 굳이 안 달아 주셔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부 수용이고요.

5번, 취약계층복지지원 이것은 지자체 분담을 없애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정부 예산만 갖고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더 늘리고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농촌왕진버스가 처음에 국비하고 농협하고 분담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금주 위원 그러다 갑자기 지자체한테 부담을 주니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졌고,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지역이 얼마나 힘든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지요. 지금 군의원들도 다 차출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다 가 버리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질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더 늘려 갈 수 있게끔 국비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국비 100%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하던 대로 하시라고요, 지자체 부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금주 위원 안 그러면 군의원을 빼 가지 말든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부대의견에 달 내용은 아닌 것 같

고요. 하시려 그러면 앞의 예산에서 하시는, 증액을 해서 담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문금주 위원 예산 증액해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기재부하고 저희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지자체 책임성이나 참여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하려 그러면 지자체의 부담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러면 지자체 부담 일부라도 있는 게……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때요?

○문금주 위원 지방교부세를 다 감액을 해 가지고 주지도 않으면서 지자체 부담만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부의 의견, 문금주 위원님의 취지 이렇게 살려서 ‘농어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분담을 줄이고 국비, 농협의 분담 비율을 늘려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늘리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소위원장 윤준병 ‘늘려 추진한다’ 그러면 되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제가 기재부하고 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할 텐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늘리는 방법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좋아요. 그렇게 수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 6번 푸드테크지원센터는 이것은 내용에 ‘전북지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다른 지역 반발이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거기에 있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푸드테크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7번·8번은 앞의 예산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굳이 안 달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9번은 이차보전 예산인데요.

이차보전 예산 중에 귀농·귀촌창업자금인데 이게 창업자금 줄 때 농외근로 시간 제한이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제한을 안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표현을 좀 고쳐서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자의 농외근로 제한 완화 등을 위한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농외근로 시간 제한을 할 게 아니고 농업근로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 정도를 넣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10번, 맞춤형 농지지원은 수용하는 거고요.

11번, 공익증진직불은 이것 11-1번은 수용이고요.

11-2번은 이게 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 여부 재검토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증진직불뿐만이 아니고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직불이 대부분이 다 자체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일반회계·농특회계에서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조금 더 간단하게 써서 ‘직불기금의 자체 수입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통합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2-1은 인삼재해보험 말씀이신데 이것도 저희들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표현만 좀 고쳐서 ‘인삼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보상 적용 기준,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의 문제 등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3번은 이게 친환경농자재지원 토양개량제 사업인데요. 이것은 조금 애매한 게 지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체 규정 개정사업이라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돈을 넣으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따라서 넣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서 여기서는 넣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4번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표현만 조금 수정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박풍, 해풍쑥 등 섬 지역 특산물이 지역 주민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번은 여수박람회 이것도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요. 표현만 ‘국가적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농촌 관광, 농촌 지역 활성화 등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농식품바우처는 이것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게 ‘취약계층의 식품……’ 이렇게 해서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의 17-1은 수용을 하고.

17-2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영양사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식생활교육사 민간자격제도의 명칭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그냥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에 영양사 참여 등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취지가 담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수입양곡대의 경우에는 이것은 ‘수입쌀의 사료용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

비를 걸 수가 있어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표현만 조금 고쳐 봤습니다. ‘정부는 정부양곡 재고 상황, 관련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쌀의 사료용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18-2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19번은 여기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다른 것은 다 괜찮습시다만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아마 농어민들이 볼 때는 ‘강서구가 더 급한가?’ 이런 지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지역만 좀 삭제하고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다음에 20번 정부양곡매입비는 이게 ‘신곡 매입’이라고 해 놓으시면 그러면 구곡 격리를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공공비축미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 추가 격리하는 것도 다 공공비축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축제를 통한 공공비축 매입 시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곡으로 매입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장 상황이 쌀 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만t 추가 격리’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 여기다가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을 저희들은 금액을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안 좋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격리 등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명시적으로 20만 원을 넣기가 어렵다 이런 얘가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전년도 정부 목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공개돼 있는 내용이라 저희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2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원장 윤준병 전년도에서, 전년도 수확기 목표는 뭔가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그렇게까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급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그렇게라도 넣읍시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1번 똑같은 내용이고요.

22번 비축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외한다’ 그래 버리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의무수입물량 수입 시 국내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비축 농산물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음, 22-2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3번은 아마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하면 되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24번도……

○소위원장 윤준병 수용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수용입니다. 24-1번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3건은? 도농상생형 도시농부 일자리사업 정부에서……

다 됐지요, 이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리고 지금 부대의견 관련해서 업추비 이 부분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류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희용 위원님께서 천연물소재 전주기 곤충 미생물산업 4개소 16억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예산에 1개소 4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올리면 되는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증액 4개소……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증액……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총 5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5개면 4개 2억씩인 거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닙니다. 4억씩……

○문금주 위원 기존에 4억 있는 게 1개소를 공모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현행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 1개소가 있는데……

○문금주 위원 1개소가 있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3개를 더한다……

○소위원장 윤준병 12억 증액.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3개 증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리고 보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여기 이제 하려고…… 증감 동시 요구 그것 하려고 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다음에 저희가 부대의견2는 어제 소위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

했고요. 오늘 소위에서 나온 내용은 또 추가로 정리해서 하고 또 추가로 송옥주 위원님께서 원-웰페어 밸리, 아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원-웰페어 밸리 부대의견을 제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하면 부대의견이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동물단체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니 제기 의견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검토해서 실제 내년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예산에 담는다는 부대의견이 필요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공모를 해서 흥성이 선발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설계비는 넣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지역주민 또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게 하면 백날 가도 안 된다고. 또 이월이야. 그 의견을 다 듣다 보면 뭐가 진행이 돼요?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그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11월까지 그 내용 가부간의 의견을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들어서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 그 내용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의견을 넣어서 11월까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충족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것은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상임위 단계에서는……

○소위원장 윤준병 부대의견을 그렇게 예결위…… ‘11월까지 그 내용을 해서 제출한다’ 이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감액·증감 없이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40억 감액인 거고요. 설계비……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40억 감액하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39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소위원장 윤준병 예.

○김선교 위원 설계비만 세우는 거지.

○소위원장 윤준병 설계비만 세우되 그 설계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11월까지 동물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내용…… 그렇게 하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원-웰페어 밸리는 그렇게 하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정희용 위원님이 24억 4000만 원 증액인데 증액하실 필요는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윤준병 위원장님이 내신 그 안으로 지금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증액은 따로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85페이지, 86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류가 된 사업인데요. 85페이지는 정희용 위원님 전체 단위사업을 24억 증액하자는 말씀이시고 86페이지는 원-웰페어

밸리 39억 7000을 감액하자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24억은 수용인 거고요. 86페이지에 51억 감액이 되는데 그중에 40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희용 위원** 이것 다른 거잖아요, 2개.

○**소위원장 윤준병** 다른 거지요. 5-2 얘기한 거고 원-웰페어 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5-1은 수용인 거고……

○**소위원장 윤준병** 5-1은 수용했고.

그러면 원-웰페어 밸리는 그렇게 됐고요.

수입안정보험 아까 얘기했는데 얼마 정리하면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수입안정보험은 제 생각에 총금액, 그러니까 재해보험에 수입안정보험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 같이 있는데 총액은 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수입안정보험이 줄어들고 그렇다 한다 그러면 재해보험으로 좀 늘려 가고, 수입안정보험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더라도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면 더 쓸 수 있게 총액은 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세요? 아까 시범사업 9개에서 15개로 확대할 경우…… 예를 들어서 기존의 9개 품목은 우리가 가입률 15% 또 신규는 10%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예산, 시범사업은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안이 지금 7847억 전체 들어 있는데요. 그걸로 바뀌게 되면 7444억으로 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7444억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설계가 어떻게 됐길래 그게 그렇게 줄어요? 훨씬 더 줄지.

○**정희용 위원** 가운데 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수입보험 가입률이 15%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15%, 시범사업 10% 할 경우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가입률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볼 때 이런 거고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면 훨씬 다르지요. 시범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81억 가지고 9개 품목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그러니까 균을 몇 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전제로 하고 시범사업을 9개 품목 하고 15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시범사업을 해도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주산지들은 다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수요는 저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필요한 것 좀 할 수 있게……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인위적으로 잘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정부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겨대면 안 되지.

수입보험으로 가입률 10% 하면 지금……

전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이것 2개를 묶어서 같이 통으로 해 주시고……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 내용은 다른 문제고 3%가 81억이잖아요, 9개 품목에. 그러면 우리가 15%로 잡으면 5배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억이네. 그다음에 또 6개 품목 시범사업 해요. 이것은 3%로 잡든, 시범사업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500억? 수입안정보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수입안정보험 저희가 이천……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전면 실시하지 않고 시범으로 한다는 내용 그대로 15개 품목 하면 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것 하고 재해보험 복귀하고요, 800억. 그다음에 채소가격 안정 500억, 앞서서 그것은 복귀하기로 했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삭감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안정보험을 어떻게 정리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깎인 부분만큼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늘려서 집행이라도 할 수 있게 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좀 늘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해서 정부 전체 금액은 줄지 않게……

○**소위원장 윤준병** 줄지 않고 내역사업은 조정해서 수입안정보험을 500억.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신에 저희가……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재해보험에다가 그만큼 넣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할 때 수입안정보험이 필요하면, 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게 그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이걸 저것 하면 저럴 것 같아요. 이게 예상치가 딱 10%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2%, 13% 들어오면 그것을 자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림은 열어 줘야 된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은 사실상 열려 있어요, 예산적으로 내역사업 간의 내용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부대의견에 좀 명확하게 달아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어떻게 부대의견에…… 그것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가지고 내역사업에다가 뭐라고 넣어요?

○**정희용 위원** 나중에 결산 때나 국감 때 혹시라도 그걸 왜 옮겨 썼냐고 지적당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들은 이미 예산심의 때 다 논의된 내용이어서…… 다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담고 있는 내용, 그중의 500억을 수입안정보험에 담고 대신에 15개 품목에 시범사업으로 유지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대신에 거기에 담겨 있던 이천 얼마 있잖아요. 그중에 나머지 재원은 재해보험에다가 증액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해서 재해보험의 총사업비 이것은 유지하되 내역사업의 금액은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 금액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이만희 위원 아니, 수입안정보험 자체가 새로운 저것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수입안정보험에 2000억 가까운 것 중에서 500억만 배정하고 나머지 1500억을 재해보험으로 넘기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저희는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통으로 묶어 가지고 재해보험이나 수입안정보험이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묶어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그래 가지고 통으로 금액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이것을 쪼개 놓으시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쪼개 봐도……

○김선교 위원 아니, 부대의견에 달 수가 없단니까 그런 거지.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 가지고 계속 반복해 봐야……

○이만희 위원 아니, 정확하게 뭔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현재도 구별돼 있는 내용이에요, 내역사업으로. 그리고 현재도 내부적으로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틀 속에 있는 내용, 지금 그렇게 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김선교 위원 가능하면 그냥 해. 그것 부대의견에 달 필요도 없지.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그만큼 높이면……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재해보험은 그만큼 증액을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해보험 전체가 삭감되면 못 살리니까 그것은 봐두고 그렇게 내역으로 해 드릴게요.

○이만희 위원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금액들은 대부분 연간 소진이 다 돼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그것 하고 모자라서 예비비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역 자체가 수입안정보험이라는 그 자체의 하나의 의미있는 잡이 진행되려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500억만 담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500억이 담겨 있는데 500억보다 더 소요가 된다면……

○김선교 위원 그러면 저 재해보험에서 갖다 쓰면 되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재해보험을 줄이고 이것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수입안정보험으로 오니까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선교 위원** 하여튼 뭐……

○**정희용 위원** 그래서 만족도하고 개선점 다 체크해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하면 돼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의 요건 자체가 다르잖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좀 다릅니다.

○**이만희 위원** 하나는 자연재해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재해가 안 나면 상관없어요.

○**문금주 위원** 자연재해는 날 수밖에 없어.

○**정희용 위원** 갈수록 커지지.

○**이만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입안정보험 자체가 우리가 채소가격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 가면서 새로운 안전망을 더 확충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는 잘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걱정하는 것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런 걱정이 되면 정확하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다 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말씀 주신 취지는 이해하고요. 그 내용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수입안정보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하여튼 현재 제도적으로 총량은 안 줄 테니까 재해보험 내에서 수입안정보험 500억, 나머지 올리려고 했던 재해보험에다 넣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게 500억인지 얼마인지는 한번 금액을 제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것은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어제 그렇게 주문했었잖아요. 안 해 와서 그런 거지.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 이게 명쾌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고요. 이게 무슨 예산이, 제목 자체가 아예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이렇게 바뀌어서 하자, 그러면 그냥 뭉쳐 버린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95쪽,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내용은 차관님, 1720억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략작물직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어제 약간 보류가 된 게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관련해서 설계해서 다시 자료 제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 부분……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관련해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의견은?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내용은……

○이만희 위원 내역 자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그냥,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전용할 수 있다는 거는 풀려져 있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는 불가피한 경우에 전용을 하는 것이, 전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행정부에 다 주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보험의 그동안의 수요량은 어느 정도 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재해보험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재해보험 관련된 부분들의 필요에 대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이렇게 한 10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본사업으로 확정하고 또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수입안정보험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의 필요량이 정부에서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우리 국회의 판단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정부는 수입안정보험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 내용은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려가 되니 그 부분 염두에 두고 대신 수입안정보험 그런 하자가 좀, 해 온 내용인데 갑자기 없애는 게 또 정부의 신뢰가 있으니 수입안정보험을 하되 예전에 3%로 시범사업 한 것 15%나 10%로 이렇게 확대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입률을 높이고, 또 정부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현재 9개 품목을 6개 품목 포함해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자 약속했으니 그 내용을 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형태로.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 반영해 주겠다. 그게 제가 얼핏 추계해보면 지금 3%의 9개 품목이 81억이니 내용은……

○이만희 위원 그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정부가 시범사업 하겠다는 내용, 취지 반영해 준다. 대신에 이게 전면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것 때문에 재해보험이 줄어든다고 보고 삭감했던 내용은 늘린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그래서 수입안정보험에 2000억 이상 되는 내용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이면 재해보험 전체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안이 줄어서 재해보험 자체도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수요가 늘어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 하는 내용의 탄력적인 운용도 저해될 수 있으니 총액은 줄이지 않겠다, 재해보험 내에 들어 있는 총액은. 대신에 거기에 지금 내역 사업으로 들어 있는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은 가닥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되 총액은 배려해서 반영해 준다. 그러면 재해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총액이 늘어났으니 내실 있게 될 뿐더러 수입안정보험도 시범사업 형태로 가지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유지가 된다.

이 정도 최대한 예산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수입안정보험 이거 전액 삭감하자고 한 내용을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정부가 그 정도 내용은 받아서 할 수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품목에 시행되었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산단지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분이 참여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수입안정보험을 하게 되면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가격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력을 높여 주는 새로운 안전책이란 말이지요.

왜냐 그러면 그동안 한 방편으로 써 왔던 채소가격안정제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겐 환영받지 못하고 수용성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증액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안정보험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대안으로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포함되는 건지를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정부 측에 한번 물어봐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수입안정보험이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른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2000억까지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만 재해보험에다가 빠진 부분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역사업이라는 것도 가능한 전용 자체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국회의 예산심의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그래도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살릴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정부안 제출한 대로 2000억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500억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 진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소요 예산이 2000억인데 지금 위원장이 1500억을 삭감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삭감된 금액을 재해보험으로 넣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왔다 갔다 해라 이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거꾸로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그거는 곤란하고요. 기본 취지……

○이만희 위원 1500억으로 하고 나머지 500억을 저기로 넘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 주는 것과 이것과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닙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 이 자체를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나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하신다는 의견 아니십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반대하지요. 전액 삭감하자는 뜻이었어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 수입안정보험 자체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걸 그대로 지켜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이거 표결할까요?

○문금주 위원 저는 삭감으로……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충분히 의견이 나와서 그걸 합리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만희 위원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시면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진짜 안 맞다고, 항상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때는…… 이 재난 관련된 재해보험 같은 것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도 가져왔거든요.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두텁게 좀 보장해 주는 측면들이 우리 농해수위의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여기서 와서 표결하시라고 그러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되 정부가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만희 위원 그래서 저도 실집행률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5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것 반대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왜 이걸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문대림 위원 저희가 사실 수입안정보험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작용 없이 안착됐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재해보험 등의 예를 보더라도 가입률 15%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중도적 입장에서 조절을 하는 건데 그렇게 가지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그 내용은 정부도 일견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용을 않더라도 안 되면 의결할 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확정돼야 되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금액을 계산해서 숫자가 나왔는데 차관님께서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맞게끔 숫자를 다시 한번 저거 해서 보고드리고 그 숫자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생각할 때 수입안정보험을 그래도 한 1300억 정도까지라도 좀 해 주시면 조금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000억 넘어가는 건 안 될 것 같던데……

그 내용은 추계해서 내역 좀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식용 전폐업 지원 사업 내용 결정 안 된 게 하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아마 지금 자료 드렸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드리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1페이지의 1번이 현재 정부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281억 이 정도 되는 거고요. 폐업지원금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안으로 했을 때, 원래 정부안에 있던 것에서 1·2구간만 합칠 때 그대로 했을

경우에 정부안 대비해서 한 22억 7800만 원, 23억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앞에 1·2구간만 합칠 때입니다. 단가는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고요.

2페이지 보시면 1구간을 1년으로 하고, 그래서 25년 12월까지로 하고, 2구간을 그 뒤로 다 합쳐 가지고 1구간은 75만 원, 2구간은 45만 원 그렇게 하고 불법 농가들도 50% 지원하는 걸로 다 포함시켰을 때 그때 414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4번, 3안이 1구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2구간·3구간·4구간까지 이렇게 나눠서 금액은 75만 원, 70만 원, 65만 원, 6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397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저는 3안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저는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자는 대로 하자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장관께서 마치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것을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사님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 모순이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의 어떤 사과랄지 유감 표명이랄지 뭔가 의견을 들어야지, 장관님의 언행은 상당히 진중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제가 작년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김건희법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했던 걸로 언론에 다 나와요.

우리는 그걸 인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 김건희법이다 그런 내용인데 마치 민주당이 김건희법이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한 것은 저는 장관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지금 문금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장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어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현장에 없어서 확인은 지금 안 됩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전달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언론에 다 나왔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언론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고 다음 회의가 있을 때는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개식용 전폐업 지원 사업 정부에서 3안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안으로 해서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397억 증액……

○소위원장 윤준병 예, 증액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까 수입안정보험 그거는 부대의견을 넣을지 말지도 정부랑 같이 고민 한번……

○소위원장 윤준병 부대의견은 필요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부대의견은 필요 없고요.

○문금주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대로 하자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업무추진비는 제가 작성한 게……

○문금주 위원 아니, 저는 원안 유지를 하는데 위원장님이 장관…… 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금액 내용이 없어서……

○문금주 위원 대신에 하여튼 장관님 오시면 입장 표명 분명히 하시라고 그래요.

○소위원장 윤준병 유감 표명.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리고 업추비 부대의견은 없는 걸로 할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수 차관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 종료 전에 농진청 예산과 관련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결한 농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정 등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 이를 수정하여 변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농진청 보류사업 결과 정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농진청이 내후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액 요구 없이 정부안 유지 이렇게 했습니다.

2번, 증감액 사업들은 증액 수용 또는 원안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 전국사업은 전국적으로 3개 사업을 확대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건에 대해서 농진청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안 유지하고 증액 요구 건은 수용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증감액 사업 보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농진청 소속 공무원 등의 근로자 처우개선 증액
분은 지금 논의한 바와 같이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계수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등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진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 및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량정책관 최명철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